# 조류 인플루엔자도 괴질 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 소녀가 조류인플루 엔자에 걸려 2월 22일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소녀의 아버지도 같이 감염된 것 으로 나타나 바이러스가 조류를 넘어 인 간 사이에 전염되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 은 현재로선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만일에 대비해 세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캄보디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11세 소녀가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 다. 수도 프놈펜 남쪽 프레이벵 지방에 살 던 소녀는 지난 16일 기침과 인후통, 섭씨 39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지역 병원을 거 쳐 프놈펜의 국립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2014년 이래 H5N1 형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첫 사 망자라고 밝혔다. 소녀와 가까이 지낸 12 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아버지만 양 성 반응을 보였다고 캄보디아 정부는 밝 혔다.

사람이 H5N1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

된 사례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전 세계에서 900명 이상이 감염돼 절반이 사망했다. 캄보디아에서 조류인플 루엔자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56명이 H5N1 조류인 플루엔자에 걸려 37명이 사망했다. 모두 병든 조류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사례였

최근에는 포유류 감염 시례가 잇따르면 서 자칫 인간을 포함해 포유류 사이에 퍼 질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유럽과 미국, 남미에서 여 우와 고양이, 흰족제비, 물개, 돌고래, 미국 너구리, 회색곰, 바다사자가 잇따라 감염

전문가들은 아직 H5N1 조류인플루엔 자가 사람 사이에 퍼지는 형태로 바뀐 것 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영국 글래스고대 의 바이러스학자인 마시모 팔마리니 교수 는 지난 24일 과학언론 지원기관인 사이 언스미디어센터에 "최근 사람 H5N1 발병 사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를 통한 것이며,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가

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가금류나 야생 조류가 대규모 로 감염됐음에도 사람 감염 사례가 제한적이 고 증가 추세도 아니라는 점도 전문가들이 변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이다. 그렇 지만 언제든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영국 노팅엄대의 바이러스학자인 조너선 볼 교수는 사이언스미디어센터에 "바이러스 가 다양한 포유류에 감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인간 간 전염 위험은 현재로선 매우 낮지만, 조류 와 포유류 집단에서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퍼 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하고 동물 감염 사 례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선비즈 [사이언스카페] 캄보디아 소 녀,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망…"세계적 감시 필요" 2023-02-27 기사에서 발췌 요약하여 인용하였습니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 나"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이 '나'라는 의 식이다.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주를 이 겼다가 되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붉은 용 마귀 다.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 야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나'를 이기 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영 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나'는 영생할 수가 없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질을 좌우하 는 것은 유연성, 근육량 그리고 근육의 질이다. 고령자일수록 하루라도 더 빠르 게 부지런하게 꾸준히 근력운동을 하여 근육을 강화해 보실까요? 근육이 있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활동이 자유로우며 활발한 체력으로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 지 않을까요?

#### 파워 스트레킹!!!

① 앉아서 몸비틀기~: 앉은 자세에 서 한쪽 팔로 반대편 허벅지를 잡고, 몸 을 비틀어 뒤를 본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② 턱 밀어 올리기~: 두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엄지를 턱 밑에 대고 턱을 위 로 밀어 올려준다. 10초 유지. 5회.

③ 엉덩이와 팔 들기~: 양다리를 옆 으로 확장하고 앉아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고, 왼손은 뒤로 짚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듯이 하면서 위로 들어 올린 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④ 한 다리 잡아당기기~: 누워서 한 쪽 다리를 잡아당겨서 가슴 앞으로 안 으면서 머리를 무릎에 댄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21회

### 末運論말そ론

始終艮野素沙地 시종간야소사지 毛童所望怨無心 모동소망원무심 三南第一吉星地 삼남제일길성지 月下彈琴牛鳴聲 월하탄금우명성 脫劫重生變化處 탈겁중생변화처 執衡按生靈合 집형안생령합 忍不耐而先入運 인불내이선입은 愚者貪利目前禍 우자탐리목전화 世人何事勝己厭 세인하사승기염 天意拒逆狼狽事 천의거역낭패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마지막 천지공 사(중천中天)의 시작과 끝맺음은 우성 인이 계시는(우성재야牛性在野) 소사 땅이니라.

이를 모르는 자는 머리털이 보송보송 한 철부지 같은 중생이라 바라는 바 죽 음밖에 없구나. 간(艮)은 동북방이요 조 선은 간방에 속한다.

소사 땅은 삼남(남조선) 제일의 길성 이 비치는 곳이요(구세주 하나님이 좌 정하신 6도81궁 정도령이 계신 곳) 고요 한 달빛 아래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리 는 가운데 소 울음소리(정도령의 진리 말씀)가 나는 곳이며 심령을 변화시켜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하며 저울대 를 잡듯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 새 생명의 영으로 합일되도록 하는 곳이니 라.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선입자의 운 이라 어리석은 자가 목전의 이익을 탐하 다가 화를 당하는 격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 을 이기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런 사람 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낭패를 보리라.

나 자신이 마귀임을 알아야 한다. 나

# 소 울음소리가 나는 소사는 심령을 변화시켜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니라



라는 의식이 마귀이다.

見人出去 견인출거 打胸哀冤不吉兆 타흉애원불길조 天定計投不足日 천정계투부족일 飛火落地人生滅 비화락지인생멸 未常天心無怨恨 미상천심무원한 人心不還自取禍 인심불환자취화 三人合日春心生 삼인합일춘심생 道不覺而怨無心 도불각이원무심

사람들이 신천촌에서 나가는 것을 보 고 가슴을 치며 나가지 말라며 애원하다 시피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니라. 하 늘이 정해둔 수가 부족한 날에는 하늘에 서 불이 내려와 인생들이 멸하게 되느니

천심은 원한이 없는데 인심(人心)이 천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즉 옛 습관(舊 쩝구습)을 고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 아가니 스스로 취한 앙화이니라.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 면 영생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이치를 가진 도(영원한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 하면 죽으리라. 三人合日(삼인합일)은 春(춘)의 파자.

太神歲壬申乙巳運 태신세임신을사운 百五而七四始末 백오이칠사시말 當末運 絕倫者 당말운 절륜자

必先一小生 필선일소생 盜賊者必先凶 도적자필선흉 保命在於三角山下半月形

보명재어삼각산하반월형 保身者在於四口體合 보신자재어사구체합 在官者不水靑直勤 怨無心也

재관자불수청직근 원무심야 害國者 陰轉陽 强亡柔存 해국자 음전양 강망유존

染色者誰 無色者誰 염색자수 무색자수 存亡興敗必見此色 존망흥패필견차색

조선왕조의 운은 태조(이성계)가 등 극한 임신년(1392년)부터 을사년(1965 년)까지이며 574년(사칠군왕 28대 임 금)까지 이니라. 이승만(李承晚) 전 대 통령이 하와이로 1960년(경자년)에 망 명하고 1965년(을사년)에 서거함으로써 이씨 왕운은 끝났다. 이승만(李承晚)이

라는 이름에서도 이씨 왕운을 계승하나 마지막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말세 의 운에는 천륜과 인륜을 끊는 자는 반 드시 먼저 죽으리라. 일소생(一小生)은 불생(不生)의 파자.

도적질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흉하리 니 반죽음을 당하리라.

목숨을 보전하는 길은 삼각산하반월 형인 마음 심(心)에 있으며 몸을 보전하 려는 자는 사구체합 즉 입 구(口)자가 네 개 합쳐진 밭 전(田=心田=마귀를 이기 신 하나님)자에 그 길이 있느니라. 관직 에 있는 자가 청렴, 정직, 근면하지 않으 면 죽으리라.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도 죽으리라.

음의 세상(마귀세상=죄악세상)이 양 의 세상(하늘나라)으로 전환되나니 강한 자는 멸망하고 온유한 자는 생명을 보존 하리라. 세속에 물든 자 누구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누구인가? 사는지 죽는 지 흥하는지 패하는지는 마음에 물든 색 (세속에 물 들었는지 아닌지)을 보면 반 드시 알게 되리라.

>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 생명샘

### 구세주란 죄를 직접 담당하는 존재

세상 종교인들은 구세주의 존재에 대 해서 어떤지 잘 모르는 것같다. 구세주를 만나서 그분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낀 승리제단 신도들에게 구세주가 어떤 존 재인지 묻는다면 전지전능하다거나, 풍 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거나, 분신으로 역사하는 존재라거나 등등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만일 필자가 이에 대한 답 을 한다면 구세주는 죄인들의 죄를 직접 담당해 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

죄를 담당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 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 형집행을 당하는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 일까? 만일 그렇다면 죄를 담당한 후에 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과 연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죄의 값 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죄를 담당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필자는 구세주 조희성님이 7년 옥고 를 치르고 나오신 날 갑자기 면모가 확 달라지 모습을 보고 죄를 담당한다는 것 의 일면을 느낀 적이 있다. 옥중생활을 하실 때 면회를 자주 가게 되었는데 흰 수의를 입으신 구세주는 밝고 당당하며 에너지 넘치는 젊은 모습이셨다. 출옥하 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런 모습이었는 데 출옥하시자마자 70대 노인의 얼굴로 변하셨던 것이다. 변한 것이란 단지 옥중 에서 세상으로 나오셨다는 것 하나뿐이

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모하실 수 있는 지 구세주가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모르 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모르 는 몇몇 신도들은 구세주가 노인이 되어 서 출옥하였으니 영생은 거짓말이라면 서 제단을 탈퇴하기도 하였으니 그들은 구세주란 존재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이었다.

구세주가 하룻밤만에 70대 노인으로 변모한 것은 신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담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한 다. 그렇게 몇달을 지낸 후 구세주는 점 점 젊어지기 시작하셨고 보광하시기 직 전에 면회에서 뵌 모습은 예전처럼 밝고 기운찬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이다.

보광하신 후에도 구세주 조희성님께 서 아직도 신도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실 까 의문이 드는 신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구세주는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광하기 전과 다 른 점이란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 담당해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형 식적으로 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잘 믿는 척 생활하는 신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스스로 영생길을 걸 어가는 시대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보광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용맹정진하는 신도들 중에서 반 드시 영생하는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안성제단**: (031)673-4635 평택제단: (010)7516-1591 부산제단: (051)863-6307 영도제단: (010)6692-7582

역곡제단: (032)343-9981-2 김해제단: (055)327-2072 대구제단: (010)6530-7909 수원제단: (031)236-8465

마산제단: (055)241-1161 진주제단: (055)745-9228 진해제단: (055)544-7464 **영천제단**: (054)333-7121

사천제단: (055)855-4270

순천제단: (010)3661-9025 정읍제단: (010)8628-2758 군산제단: (063)461-3491 대전제단: (042)522-1560 청주제단: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010)2945-8254

横浜祭壇: (045)489-9343 神戶祭壇: (078)862-9522 下關祭壇: (0832)32-1988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Sydney: (006)0415-727-001

大阪祭壇: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